

사회복지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지출항목, 시기, 레짐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이 영 수**

〈 목 차 〉

- | | |
|--------------------|--------------------|
| 1. 서론 | 3) 분석모델 및 분석방법 |
|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4. 분석결과 |
| 1) 사회복지지출과 경제성장: | 1) 기술적 통계분석 |
| 이론적, 실증적 논의 | 2) 사회복지지출이 경제성장에 |
| 2) 사회복지지출과 경제성장: | 미치는 영향 |
| 지출항목별, 시기별, 레짐별 차이 | 3) 지출항목별, 시기별, 레짐별 |
| 3. 연구방법 | 분석결과 |
| 1) 분석대상 | 5. 결론 및 함의 |
| 2) 변수 및 분석자료 | |

초 록

복지와 성장의 관계는 사회과학의 오랜 논쟁 중 하나이며,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들이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사회복지지출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여전히 모호하며, 실증적 증거들은 분석대상, 분석방법, 분석변수 등에 따라 일치된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사회복지지출 및 사회복지지출의 하위 항목들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더 나아가 경제적 글로벌화(globalization) 및 자본주의의 다양성(Varieties of Capitalism) 논의를 바탕으로 시기별, 레짐별로 복지과 성장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1981-2011년 기간 동안 21개 OECD 국가에 대한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총사회복지지출은 경제성장과 부적 관계를 보였다. 지출항목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역시 전반적으로 부적인 관계를 보였다. 시기별, 레짐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조정된 시장경제' 국가들의 경우 1990년대 중반 이후 사회복지지출이 성장에 미치는 부적 영향이 약화되거나 경우에 따라 정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조정되지 않은 시장경제' 국가들의 경우 복지와 성장 간의 부적 관계가 1990년대 중반 이후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지와 성장의 관계가 시기별, 레짐별로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사회복지지출, 경제성장, 자본주의의 다양성, 조정된 시장경제

* 이 논문은 인천대학교 2013년도 자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yslee@inu.ac.kr)

■ 최초투고일자: 2016년 3월 4일 ■ 게재확정일자: 2016년 4월 4일 ■ 논문수정일자: 2016년 4월 7일

1. 서론

사회복지와 경제성장의 관계는 사회과학의 오랜 논쟁 중 하나이지만 여전히 일관된 이론적, 실증적 결과들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주류(main-stream) 신자유주의(neo-liberal) 경제학자들은 사회복지가 저축, 투자, 근로유인 등 경제적 행위에 왜곡을 가함으로써 생산성과 경쟁력을 떨어트리며 이는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Haveman, 1997; Simoes, Duarte, & Andrade, 2014). 특히 1970년대 이 후 가속화된 경제적 글로벌화(globalization)의 상황에서 복지지출이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Blancard & Wolfers, 1999), 높은 수준의 복지체제를 유지 하던 유럽 국가들의 저성장과 맞물려 '복지국가의 위기', '복지의 감축 및 조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그러나 이와 상반된 주장 역시 존재하는데, 사회복지지출은 자동안정장치(automatic stabilizer) 역할을 통해 거시경제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고, 공공 및 민간소비 증대, 실업감소, 고용증가, 인적 자본 및 생산성 증대, 정치적 안정성 및 사회적 응집력 강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장, 단기적으로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Atkinson, 1995; Barr, 2002; Fuceri & Zdzenicka, 2011; Sala-i-Martin, 1992).

사회복지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대한 서로 상충되는 이론적 주장들을 고려하면 실증적 증거가 중요하며, 이를 반영하듯 1980년대 중반 이후 복지과 성장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실증적 연구들 역시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가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연구들(김태완 외, 2013; Alvarez-Garcia, Saez, & Castaneda, 2015; Arjona, Ladaique, & Pearson, 2002; Atkinson, 1995; Folster & Henrekson, 2001; Gwartney, et al., 1998; Weede, 1986, 1991), 사회복지와 경제성장이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는 연구들(차병섭 · 이영, 2013; Cashin, 1994; Castles & Dowrick, 1990; Baldacci, et al., 2004; Barro, 1989; Doytch, et al., 2010; Furceri & Zdzenicka, 2012; Perrotti, 1994; Sala-i-Martin, 1992), 둘 사이의 유의미한 관계를 검증하지 못한 연구들(송호신, 2009; Bellettini & Ceroni, 2000; Lindert, 2004)이 혼재되어 있다. 이는 복지와 성장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모형의 부재, 분석대상 및 기간의 차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선택 편향(selection bias), 분석방법론의 차이, 분석자료의 측정오차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기인할 수 있는데(송호신, 2009; Simoes, Duarte, & Andrade, 2014), 특히 본 연구는 사회복지지출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있어 지출항목별, 시기별, 레짐별 차이에 주목한다.

첫째, 사회복지지출과 경제성장 간의 선순환 관계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특정한 유형의 사회복지지출의 효과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건강, 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출은 인적자본 수준의 향상을 통해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Alfonso & Alegre, 2011), 육아수당, 보육서비스, 출산·육아휴직 등의 사회복지지출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인다(Huber & Stephens, 2002). 대표적인 사회서비스 중 하나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역시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고용 및 생산성

을 높여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Martin, 1996). 최근 이루어진 실증적 연구들은 이러한 주장을 대체로 지지하는데(Ahan & Kim, 2015; Arjona, Ladaique, & Pearson, 2002; Furceri & Zdzienicka, 2012), 사회서비스에 대한 지출 역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김태완 외, 2013) 사회복지지출의 구조 또는 하위 항목들이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둘째, 복지와 성장 간의 관계는 단선적인 것이 아니라 시기에 따라, 개별 국가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이 연구는 경제적 글로벌화(globalization)와 자본주의의 다양성(Varieties of Capitalism) 논의에 주목한다. 1970년대 이후 경제적 글로벌화의 가속화는 개별 국가의 복지지출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데, 글로벌화 된 경제체제 하에서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투자유인 강화 및 노동비용의 억제가 중요할 수 있으며 이는 복지지출에 대한 외부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Blanchard & Wolfers, 1999). 즉, 경제적 글로벌화의 진행에 따라 사회복지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자본주의의 다양성 논의는 금융 및 경제 관리방식, 생산제도, 노사관계에 따라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를 상이한 레짐으로 구분하는데, 제도적 상보성(institutional complementarities)의 존재로 특정 유형의 생산레짐은 특정 유형의 복지레짐과 조응할 수 있다(안상훈, 2005; Ebbinghaus & Manow, 2001; Hall & Soskice, 2001). 이는 개별 국가의 생산레짐에 따라 사회복지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1981-2011년 선진자본주의 국가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지출 및 지출의 하위항목들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지출과 경제성장과의 관계가 시기별, 레짐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초점을 두고 분석할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사회복지지출과 경제성장: 이론적, 실증적 논의

사회복지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크게 두 가지 상반된 방향으로 나뉜다. 우선 사회복지지출이 경제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주류경제학의 논의를 살펴보면 과도한 사회복지지출은 저축, 투자 및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첫째, 사회복지지출은 저축 및 투자를 감소시켜 자본 축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는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을 저해한다. 예를 들어, 가장 규모가 큰 사회복지정책 중 하나인 부과방식(pay-as-you-go)의 공적연금제도는 민간저축을 감소시키고 국가저축을 구축(crowding-out)할 수 있는데 이는 경제성장을 위한 자본 축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Bellettini & Ceroni, 2000; Feldstein, 1974; Lindbeck, 1995). Feldstein(1974)은 생애주기모형(life-cycle model)에 기반 한 미국의 시계열 자료 분석을 통해 연금

자산이 민간저축을 저해한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미래에 예상되는 연금의 가치가 커지면 필요한 저축의 크기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다 최근의 연구들은 공적연금제도와 저축간의 이론적, 실증적 관계가 보다 복잡할 수 있으며, 공적연금제도가 저축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그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Aaron, 1981; Barnett & Brook, 2010; Baldacci, et al., 2010; Carritte & Williamson, 1995; Feldstein, 1996). 예를 들어 연금제도를 통해 미래에 기대되는 연금자산이 존재 하더라도 개별 경제주체는 조기퇴직, 공적연금소득의 보완, 자녀에 대한 유산상속 등의 동기로 저축률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다(Aaron, 1981; Carritte & Williamson, 1995). 다른 한편, 사회복지지출은 고소득자에게서 저소득자로의 소득재분배를 수반하는데, 저소득자에 비해 고소득자의 저축에 대한 성향이 높다면 이러한 소득재분배는 저축의 감소로 연결될 수 있다(Kaldor, 1956).

둘째, 사회복지지출은 고용의 감소를 통해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사회복지지출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세율이 증가하고 실질임금이 감소한다면 대체효과(substitution effect)의 발생으로 노동의 공급이 감소한다(Bellettini & Ceroni, 2000). 또한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인 실업급여의 존재는 실업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고용주와 노동자의 노력에 영향을 미쳐 실직확률을 높일 수 있고, 유보임금(reservation wage)을 높여 실업기간을 늘릴 수 있다(Holmlund, 1997). 노동 수요 측면에서도 높은 세율과 사회보장기여금은 노동비용을 높여 노동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다(Haveman, 1997; Siebert, 1997). 공적연금제도 역시 노동공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연금수급에 대한 기대는 조기퇴직의 확률을 높일 수 있으며 이 경우 고령 노동자들의 노동공급이 감소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사회복지지출이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다양한 이론적 논의들이 있는데, 사회복지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세율의 증가는 혁신(innovation)에 대한 수익률을 줄이거나(Arjona, Ladaique, & Pearson, 2002), 재정충당을 위해 국가가 채권을 구입하는 경우 이자율을 높여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Sakellariadis, 2009). 또한 몇몇 학자들은 사회복지지출의 확대는 복지수급자의 정부에 대한 의존 증가, 지하경제의 확대 등을 통해 성장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Cho, 2009).

반면 사회복지지출이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이론적 주장 역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케인즈 경제이론에 따르면 사회복지지출은 자동안정장치 역할을 통해 거시경제의 안정에 기여하는데, 경제불황기에 사회복지지출을 통해 수요를 유지할 수 있고, 호황기에는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다(Barr, 2002). 신자유주의(neo-liberal) 주류 경제학자들은 글로벌화 된 경제체제 하에서 자동안정장치의 역할이 약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나(Mitchell, 2005), OECD(2000)의 실증 연구 등에 따르면 자동안정장치의 효과는 여전히 유효하다. 또한 사회복지지출은 사회적 응집력 및 정치적 안정성을 높여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Sala-i-Martin, 1992). Fuceri & Zdzienicka(2011)에 의하면 사회복지지출은 특히 단기적으로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공공 및 민간소비 증대, 실업감소, 고용증가, 인적자본 및 생산성 증대 등을 통해 성장에 기여한다. Atkinson(1995) 역시 사회복지지출이 생산성 증대를 통해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사회복지지출의 확대는 가계소득 향상을 통해 수요를 창출하고, 성장 및 위험에 대한 안정망을 제공함으로써 기술발전

및 생산성 향상을 유도할 수 있고, 인적자본 향상을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복지와 성장 간의 관계에 대한 상반된 이론이 존재하는 것을 반영하듯, 사회복지지출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대한 국내외의 실증 연구들 역시 다양한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복지지출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차병섭 · 이영, 2013; Cashin, 1994; Castles & Dowrick, 1990; Baldacci, et al., 2004; Barro, 1989; Doytch, et al., 2010; Furceri & Zdzienicka, 2012; Perrotti, 1994; Sala-i-Martin, 1992),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김태완 외, 2013; Alvarez-Garcia, Saez, & Castaneda, 2015; Arjona, Ladaique, & Pearson, 2002; Atkinson, 1999; Folster & Henrekson, 2001; Gwartney, et al., 1998; Weede, 1986, 1991), 둘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를 검증하지 못한 연구(김태성, 1997; 송호신, 2009; Bellettini & Ceroni, 2000; Lindert, 2004) 등 다양한 결과들이 혼재되어 있다.

Folster & Henrekson(2001)은 1970-1995년 기간 동안 선진국을 대상으로 사회지출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GDP 대비 사회지출 10%의 증가는 0.7-0.8%의 성장률 하락과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Arjona, Ladaique, & Pearson(2002)은 1970-1998년의 기간 동안 21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지출과 경제성장간의 관계를 Pooled Mean Group(PMG) 추정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여 총사회복지지출은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김태완 외(2013)는 1980-2010년 기간 동안 33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5년 단위 시계열 자료를 구축하고 고정효과모형, 동태적 패널모형, 도구변수모형 등을 사용하여 사회지출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용된 분석방법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총사회지출, 현물지출, 현금지출 모두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병섭 · 이영(2013)은 사회복지지출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분석할 때 나타나는 내생성(endogeneity)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도구변수법과 구조방정식모형을 활용하여 사회복지지출과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1980-2009년 기간 동안 30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 사회복지지출이 5.9% 증가하면 연간 경제성장률이 0.8~1% 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indert(1996, 2004)에 의하면 사회복지지출과 경제성장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데, 높은 사회지출을 보이는 선진 국가들은 경제성장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금 및 이전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으며 특히 세금과 복지수급 자격조건의 보편주의는 엄격한 자산조사와 복잡한 세금체계에 비해 성장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Bellettini & Ceroni(2000)는 1960-1990년의 기간 동안 20개 선진국을 대상으로 사회보장지출과 경제성장간의 관계를 다양한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살펴보았는데, 사회보장지출과 경제성장은 정적 관계를 보였으나 관계의 정도가 약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을 밝혔다. 송호신(2009) 역시 1970-2003년 기간 동안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지출과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기본적인 성장회귀식에 사회복지지출을 독립변수로 추가하여 Mankiw, Romer, & Wei(MRW) 추정방법, 기간별 평균을 이용한 고정효과모형, 동질적 회귀계수 가정을 완화한 PMG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안정적이고 일치된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MRW 추정, 기간별 평균을 이용한 방법에서는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고, PMG 추정치의 경우 지출과 성장 간 부적 관계가 나타났으나 성장 회귀식의 다른 변수들의 결과가 안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복지와 성장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들은 일관된 결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이론적 모호함에서 기인하는 것일 수 있고, 분석대상, 분석기간, 분석변수, 분석방법 등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본 연구는 보다 최근의 시기를 포함하는 데이터를 사용하여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사회복지지출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함으로써 복지와 성장 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에 실증적 증거를 더하고자 한다.

2) 사회복지지출과 경제성장: 지출항목별, 시기별, 레짐별 차이

이 연구는 사회복지지출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있어 지출항목, 시기, 레짐에 따른 차이에 초점을 두고 분석한다.

사회복지지출과 경제성장 간의 정적 관계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사회복지지출의 구조 또는 특정한 유형의 사회복지지출의 효과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건강, 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출은 인적 자본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는 증대된 노동 생산성을 통해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Alfonso & Alegre, 2011; Barro, 1991; Bellettini & Ceroni, 1999; Jung & Thorbecke, 2003; Khan & Ahmed, 1999). 특히 사회복지지출은 취약한 집단의 인적자본 및 생산성을 높여 경제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Doytch, Hu, & Mendoza, 2010). 또한 육아수당, 보육서비스, 출산 및 육아휴직 등의 사회복지지출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이며(Huber & Stephens, 2002),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역시 직접적으로 고용 및 생산성을 높여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Martin, 1996). 앞서 살펴보았듯이 실업급여의 존재는 실업 확률 및 실업기간을 높여 고용을 저해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성을 높여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실업급여의 존재로 구직자들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직업탐색을 할 수 있으며, 고용주에게 높은 생산성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유인을 제공한다(Lindert, 2004).

사회복지지출을 하위 범주로 구분하여 분석한 실증연구들을 살펴보면 이상의 이론적 논의들이 대체로 지지되는데, 예컨대 Arjona, Ladaque, & Pearson(2002)은 1970-1998년의 기간 동안 21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지출을 적극적(active) 지출 및 소극적(passive) 지출로 구별하여 분석한 결과, 적극적 사회지출은 경제성장에 정적 영향을, 현금이전 등 소극적 지출은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urceri & Zdzienicka(2012)는 1980-2005년 기간 동안 23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사회지출과 성장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사회지출 1%의 증가가 GDP 성장 0.1%와 관련되어 있으며 경제 불황기에 이러한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결론지었다. 특히 사회지출 항목별로 분석한 결과 건강 및 실업에 대한 지출이 가장 큰 정적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hn & Kim(2015) 역시 1990-2007년 기간 동안 15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사회지출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는데, 특히 독립변수로 사회복지 지출비율을 사용하

여 전체 사회지출 중 사회서비스에 대한 지출비중이 높을수록 경제성장이 높아짐을 보였다. 변영우(2012)는 1997-2007년 기간 동안 27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지출과 고용률, 실질경제성장률 등 경제적 성과와의 관계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사회복지지출을 소득보장지출과 사회투자지출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소득보장지출은 경제적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사회투자지출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건강에 대한 정부지출이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Alfonso & Alegre, 2011; Khan & Ahmed, 1999), 교육에 대한 지출이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Barro, 1991; Jung & Thorbecke, 2003) 등 사회복지지출 항목별로 복지와 성장간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많은 실증적 연구들이 존재한다.

시기별로 복지와 성장 사이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는데, 특히 경제적 글로벌화(globalization)가 심화되면서 사회복지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할 수 있다. 글로벌화 된 경제체제 하에서 국가경쟁력은 경제성장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데, 사회복지지출의 증대는 노동비용을 높여 국가경쟁력을 잠식할 수 있고 이는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Blanchard & Wolfers, 1999; Pfaller, Gough, & Therborn, 1991).

다른 한편 사회복지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자본주의의 다양성 논의를 바탕으로 국가들 간의 상이성에 주목한다. 전통적인 복지국가의 발달 및 유형화에 관한 논의들은 복지국가 발전에 있어 조직화된 노동의 역할을 강조한 반면 자본주의의 다양성 논의는 기업 및 자본의 적극적 역할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하위체제 간의 조정, 복지와 생산레짐 간의 제도적 상보성(institutional complementarities)을 강조한다(안상훈, 2005; Ebbinghaus & Manow, 2001; Hall & Soskice, 2001). 자본주의의 다양성 논의는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를 두 가지 유형, 조정된 시장경제(Coordinated Market Economy)와 자유시장경제(Liberal Market Economy)로 구분한다(Ebbinghaus & Manow, 2001; Hall & Soskice, 2001). 조정된 시장경제와 자유시장경제의 차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조정된 시장경제는 금융 및 경제 관리방식 측면에서 장기적인 자본, 생산제도 측면에서 고숙련 생산, 고급 질적 생산 및 유연적 특성화, 노사관계 측면에서 조정된 협상에 기반 한 협조적 노사관계의 특징을 지니며 독일, 일본, 스웨덴 등의 국가를 포함한다. 반면 LME는 미국, 영국 등의 국가로 대표되는데 주주의 이해(interest)에 기반한 단기적 금융시장, 저숙련 생산, 대량생산 및 수량적 유연화, 탈중앙화 된 협상에 기초한 갈등적 노사관계의 특징을 보인다(심상용, 2010; 안상훈, 2005; Ebbinghaus & Manow, 2001; Hall & Soskice, 2001).

본 연구와 관련하여 특히 중요한 부분은 특정한 생산레짐과 특정한 복지레짐 간에 제도적 상보성이 존재할 수 있으며, 제도적 상보성의 존재는 조정된 시장경제와 자유시장경제 간의 차이를 강화한다는 점이다(Hall & Soskice, 2001). 예를 들어 Esping-Andersen(1980)의 복지국가 유형 중 엄격한 자산 조사와 낮은 수준의 복지급여로 대표되는 자유주의 복지국가 유형은 저숙련, 유연적 노동시장을 강조하는 자유시장경제와 잘 들어맞을 수 있다. 또한 자유주의 복지국가 유형에서는 개개인으로 하여금 특수적(specific) 기술에 비해 일반적(general) 기술을 개발할 유인을 제공하는데 이는 자유시장경제

의 기업전략과 상응할 수 있다(Hall & Soskice, 2001). 반면 조정된 시장경제의 경우 고숙련의 산업 및 기업 특수적 기술을 가진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데, 해고 및 재고용의 위험이 크다면 인적자본 투자에 대한 유인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국가가 제공하는 관대한 공적연금, 실업급여, 적극적노동시장 정책 등은 기업 및 산업 특수적 기술에 대한 투자 유인을 제고할 수 있다(Hall & Soskice, 2011). 이러한 논의에 비추어보면 사회복지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개별 국가의 생산레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예컨대 자유시장경제 국가들의 경우 높은 사회복지지출이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반면 조정된 시장경제 국가들의 경우 사회복지지출과 생산전략의 상보성으로 인해 높은 사회복지지출이 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거나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사회복지지출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할 것이다. 첫째, 전체 사회복지지출 외에 개별 지출항목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분석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적극적 사회복지지출 또는 사회투자지출로 간주될 수 있는 지출항목들은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가 최근의 데이터를 사용한 분석에서도 여전히 유효한지 검증할 것이다. 둘째, 1995년 이전, 이후로 구분되는 시기더미변수 및 시기더미변수와 사회복지지출 간의 상호작용 분석을 통해 시기별로 사회복지지출과 경제성장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 분석할 것이다. 또한 조정된 시장경제와 조정되지 않은 시장경제로 구분되는 레짐더미 변수 및 레짐더미 변수와 사회복지지출 간의 상호작용 분석을 통해 레짐별로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지출, 시기더미, 레짐더미 변수의 삼원(three-way) 상호작용 분석을 통해 시기별, 레짐별 사회복지지출과 경제성장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3. 연구방법

1) 분석대상

사회복지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지출항목별, 기간별, 레짐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1981~2011년 사이의 21개 OECD 회원국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 독립변수인 총사회복지지출 및 항목별 사회복지지출 데이터가 모두 이용 가능한 1981년부터 2011년 사이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시기는 경제위기 및 경제적 글로벌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복지국가 감축 및 조정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분석대상 국가는 21개 OECD 국가로 오스트리아,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그리스,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노르웨이를 포함한다. 데이터가 이용 가능한 국가 중 비슷한 수준의 정치, 경제, 사회적 배경을 지닌 선진자본주의 국가로 분석대상을 제한하였다.

2) 변수 및 분석자료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일인당 실질 GDP의 연간 성장률이며 주된 독립변수는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의 비중이다. 사회복지지출의 하위범주는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의 분류를 따랐는데, 노령, 건강, 실업, 적극적노동시장정책, 가족 및 장애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다. OECD의 분류 중 주거에 대한 지출 및 기타 지출 항목은 비중이 작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통제변수는 성장회귀식에 일반적으로 투입되는 변수들로 구성되었는데(Barro, 1990; Basanini & Scarpetta, 2001), 전 해의 일인당 실질 GDP 수준, GDP 대비 총자본형성비중, 교육년수 및 교육복귀비율로 측정된 인적자본수준, 인구성장률, GDP 대비 수출입 비중으로 측정된 무역개방도, 연간 인플레이션 변화율이 포함되었다. 대부분의 독립, 통제변수는 분포의 편향을 고려하여 자연로그를 취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이 시기별, 생산레짐별로 복지와 성장 간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조절변수로 시기더미 및 레짐더미 변수가 사용되었다. 시기더미 변수는 1995년을 기점으로 두 시기로 나누어 구성하였는데(1=1995-2011, 0=1981-1994), 1995-2011년은 1981-1994년 보다 경제적 글로벌화가 심화된 시기이다. KOF Globalization Index에 따르면 분석대상인 21개 OECD 국가의 1981-1994년 시기동안 경제적 글로벌화 지수의 평균은 67.10이며 1995-2011년 시기동안의 평균은 78.61로 나타났다(Dreher, 2006). 레짐더미 변수는 앞서 살펴본 자본주의의 다양성 논의에 따라 조정된 시장경제 레짐과 조정되지 않은 시장경제 레짐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1=조정된 시장경제 레짐, 0=조정되지 않은 시장경제 레짐). 조정된 시장경제 레짐에는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일본이 포함되었고 이 외의 국가들은 조정되지 않은 시장경제 레짐에 포함하였다(Ezrow & Hellwig, 2015). 각 변수의 정의 및 출처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변수의 정의 및 출처

변수명	변수정의	변수출처
종속변수	ΔY_{it} 일인당 실질 GDP 성장률 (constant 2005 USD)	Penn World Table 8.1
독립변수	TOT_{it} 총사회지출 (GDP 대비 비중)	OECD SOCX
	OLD_{it} 노인지출 비중 (GDP 대비 비중)	OECD SOCX
	HLT_{it} 건강지출 비중 (GDP 대비 비중)	OECD SOCX
	EMP_{it} 실업지출 비중 (GDP 대비 비중)	OECD SOCX
	ALM_{it}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지출 비중 (GDP 대비 비중)	OECD SOCX
	FAM_{it} 가족지출 비중 (GDP 대비 비중)	OECD SOCX
	CAP_{it} 장애인지출 비중 (GDP 대비 비중)	OECD SOCX
통제변수	Y_{it-1} 전 해 일인당 실질 GDP 수준 (constant 2005 USD)	Penn World Table 8.1
	S_{it} 총자본형성 (GDP 대비 비중; current PPP)	Penn World Table 8.1
	H_{it} 인적자본 수준 (교육년수 및 교육복귀에 기반 한 지수)	Penn World Table 8.1
	P_{it} 인구성장률	OECD Statistics
	T_{it} 무역개방도 (GDP 대비 수출 및 수입 비중)	World Bank Database
	I_{it} 인플레이션	World Bank Database
조절변수	PD 시기더미 (1=1995-2011, 0=1981-1994)	
	RD 레짐더미 (1=조정된 시장경제, 0=조정되지 않은 시장경제)	

3) 분석모델 및 분석방법

사회복지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분석모형은 다음과 같다. 기본적인 성장회귀식 모형(Barro, 1990; Basanini & Scarpetta, 2001)에 사회복지지출 및 기타 통제변수를 추가하였다.

$$\Delta \ln Y_{i,t} = \alpha_i + \eta_t + \beta_1 \ln Y_{i,t-1} + \beta_2 \ln S_{i,t} + \beta_3 \ln H_{i,t} + \beta_4 \ln P_{i,t} + \beta_5 \ln SX_{i,t} + \sum_{j=6}^7 \beta_j V_{j,i,t} + \epsilon_{i,t}$$

$\Delta \ln Y_{i,t}$: 실질 일인당 GDP 성장률, α_i : 국가 고정효과, η_t : 연도 고정효과,

$\ln Y_{i,t-1}$: 전 해 실질 일인당 GDP(로그), $\ln S_{i,t}$: 총자본형성(로그), $\ln H_{i,t}$: 인적자본(로그),

$\ln P_{i,t}$: 인구성장률(로그), $\ln SX_{i,t}$: 사회복지지출(로그), $V_{j,i,t}$: 통제변수, $\epsilon_{i,t}$: 오차항

국가 간 횡단자료와 국가 내 종단자료가 결합된 패널자료는 분석 상 다양한 장점이 있으나 일반적인 OLS(Ordinary Least Square) 방법으로 추정하기 어렵다. 패널자료를 OLS로 추정하는 경우 오차항에 자기상관, 동시상관, 이분산성 등의 문제가 존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오차항이 국가(unit) 및 시기(period) 효과를 감추거나 국가별, 시기별 이질성을 반영할 수 있다(Hicks, 1994). 총사회복지지출 및 기타 변수들을 활용한 기본 회귀모형을 활용하여 다양한 검증을 실시한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었다. Breusch-Pagan 검증 및 Hausman 검증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기 때문에 임의효과(random effect) 모형보다 고정효과(fixed effect) 모형이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라 회귀식에 국가 고정효과와 연도 고정효과를 포함한 고정효과 모형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또한, Modified Wald 이분산성 검증, Pesaran 동시상관 검증, Wooldridge 자기상관 검증을 실시한 결과 이분산성, 동시상관, 패널 AR(1) 자기상관 등이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분산성 및 동시상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Beck & Katz(1995)가 제안한 OLS-PCSE(Ordinary Least Square with Panel Corrected Standard Errors) 방법을 사용하였고, 자기상관 문제를 고려하여 오차항에 패널별 AR(1) 과정을 가정하여 추정하는 Prais-Winsten 추정방법을 결합하여 분석하였다(Plumper, Troeger & Manow, 2005).

<표 2> 회귀가정 검증 결과

검증		검증결과
임의효과	Breusch-Pagan 검증	$\chi^2(1) = 69.23^{***}$
고정효과	Hausman 검증	$\chi^2(7) = 90.10^{***}$
패널 이분산성	Modified Wald 검증	$\chi^2(21) = 579.21^{***}$
패널 동시상관	Pesaran 검증	-3.360 ^{***}
패널 AR(1) 자기상관	Wooldridge 검증	$F(1, 20) = 139.56^{***}$

*** p<.001

이상에서 설명한 분석모형 및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사회복지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지출항목별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 살펴보기 위해 총사회복지지출 외에 노령, 건강, 실업, 적극적노동시장정책, 가족, 장애 등 사회복지지출 항목별로 각각 별개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핵심 연구문제인 시기별, 생산레짐별 복지와 성장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기 사회복지지출, 시기더미, 레짐더미 변수 간의 이원(two-way), 삼원(three-way) 상호작용항을 분석모델에 추가로 투입하였다.

4. 분석결과

1) 기술적 통계분석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적 통계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대부분의 변수들이 편향된(skewed) 분포를 보여 자연로그를 취한 값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3> 주요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1981~2011년, 21개 OECD 국가)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ΔY	1.77	2.39	-8.97	10.54
S	25.83	4.60	13.63	40.20
H	2.88	0.32	2.02	3.62
P	0.58	0.45	-0.23	2.33
T	74.34	49.35	15.92	348.39
I	3.88	4.09	-1.71	29.30
TOT	21.09	5.12	9.7	35.5
OLD	8.10	2.78	3.20	16.00
HLT	5.59	1.15	2.50	8.70
EMP	1.37	1.07	0.10	5.30
ALM	0.72	0.48	0.10	2.80
FAM	1.98	1.09	0.20	4.80
CAP	2.58	1.29	0.60	6.40

주: 각 변수의 정의는 <표 1> 참조

사회복지지출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 두 변수 사이의 단순상관관계를 국가별로 살펴본 결과가 <그림 1>에 제시되었다. <그림 1>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지출과 경제성장 간에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으나 관계의 방향이나 정도가 국가별로 상이한 모습도

발견된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 시기, 전체 국가에 대한 하나의 동질적인 회귀계수를 도출하는 것보다 이론 및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시기별, 레짐별로 상이한 관계를 분석하는 본 연구의 목적이 타당함을 알 수 있다.



〈그림 1〉 국가별 사회복지지출과 경제성장 간의 단순상관관계

2) 사회복지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총사회복지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가 <표 4>에 제시되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의 경우 패널별 AR(1) 자기상관이 허용된 OLS-PCSE 추정방법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결과의 비교를 위해 OLS, 임의효과모형, 고정효과모형 추정방법의 결과를 함께 제시하였다. <표 4>에 제시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추정방법 간 분석결과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분석 결과 총사회복지지출은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 = -0.3 \sim -0.8$, $p < .001$).

〈표 4〉 사회복지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OLS	RE	FE	OLS-PCSE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ln Y_{t-1}$	-.02*** (.004)	-.02*** (.006)	-.05*** (.009)	-.09*** (.01)
$\ln S$	.008 (.005)	.01* (.006)	.03*** (.005)	.05*** (.008)
$\ln H$	.01 (.01)	.01 (.01)	-.03+ (.02)	-.05* (.02)
$\ln P$	-.74** (.25)	-1.17*** (.28)	-.88** (.26)	-.96** (.36)
$\ln T$	.01*** (.002)	.02*** (.002)	.05*** (.006)	.06*** (.01)
I	-.002*** (.0003)	-.003*** (.0003)	-.002*** (.0003)	-.003*** (.0004)
$\ln TOT$	-.03*** (.004)	-.05*** (.005)	-.07*** (.006)	-.08*** (.008)
Con	.22*** (.05)	.28*** (.06)	.54*** (.10)	.82*** (.15)
R^2	.20	-	.64	.69
N	651	651	651	651

주: OLS: 최소자승법, RE: 임의효과모형, FE: 고정효과모형, OLS-PCSE: Ordinary Least Square with Panel Corrected Standard Errors (패널별 AR(1) 자기상관 허용), 국가더미변수, 연도더미변수, 추세변수 분석에 포함, $\ln Y_{t-1}$: 지체된 실질 일인당 GDP(자연로그), $\ln S$: GDP대비 총자본형성 비중(자연로그), $\ln H$: 인적자본지수(자연로그), $\ln P$: 인구성장률(자연로그), $\ln T$: GDP 대비 수출입 비중(자연로그), I : 인플레이션 증가율, $\ln TOT$: GDP 대비 총사회복지지출 비중, Con : 상수항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3) 지출항목별, 시기별, 레짐별 분석결과

다음으로 사회복지지출 항목별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적극적인노동시장정책 지출을 제외한 모든 하위 지출항목이 경제성장과 부적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에 대한 지출의 부적영향이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다($b = -0.06$, $p < .001$), 실업($b = -0.009$, $p < .001$) 및 가족에 대한 지출($b = -0.01$, $p < .001$)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지출의 경우 역시 부적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5〉 사회복지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지출항목별 분석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모델5	모델6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ln Y_{t-1}$	-.11*** (.01)	-.09*** (.02)	-.11*** (.02)	-.11*** (.02)	-.09*** (.02)	-.09*** (.02)
$\ln S$	.05*** (.01)	.06*** (.01)	.06*** (.01)	.06*** (.01)	.06*** (.01)	.06*** (.01)
$\ln H$	-.02 (.02)	-.04* (.02)	-.02 (.02)	-.05** (.02)	-.04* (.02)	-.07*** (.02)
$\ln P$	-.75* (.37)	-.42 (.39)	-.10 (.38)	-.17 (.39)	-.24 (.37)	-.61 (.38)
$\ln T$	.05*** (.01)	.06*** (.01)	.07*** (.01)	.07*** (.01)	.06*** (.01)	.06*** (.01)
I	-.002*** (.0004)	-.002*** (.0004)	-.002*** (.0004)	-.002** (.0005)	-.002*** (.0004)	-.002*** (.0004)
$\ln OLD$	-.06*** (.01)					
$\ln HLT$		-.04*** (.01)				
$\ln EMP$			-.009*** (.002)			
$\ln ALM$				-.003 (.002)		
$\ln FAM$					-.01*** (.003)	
$\ln CAP$						-.02*** (.004)
Con	.84*** (.14)	.60*** (.17)	.68*** (.17)	.70*** (.18)	.55** (.17)	.58*** (.16)
R^2	.67	.66	.67	.67	.66	.65
N	651	651	643	583	651	651

주: OLS-PCSE 추정. 패널별 AR(1) 자기상관 허용, 국가더미변수, 연도더미변수, 추세변수 분석에 포함, 변수명은 <표 4> 주 참고, $\ln HLT$: 건강지출 비중, $\ln EMP$: 실업지출 비중, $\ln ALM$: 적극적노동시장정책지출 비중, $\ln FAM$: 가족지출 비중, $\ln CAP$: 장애지출 비중, Con : 상수항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사회복지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시기별로 어떻게 달라지는 지 살펴보기 위해 시기더미 변수 및 시기더미 변수와 사회복지지출 간 상호작용항이 추가된 분석결과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실업 및 가족에 대한 지출을 제외하고 모든 지출항목에서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우선 총사회복지지출을 살펴보면 1981~1994년 시기($b = -0.10$)에 비해 1995~2011년 시기($b = -0.14$)에 경제성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및 건강에 대한 지출 역시 비슷

한 결과를 보였다. 적극적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지출은 상이한 결과를 보였는데 1981~1994년 시기에는 경제성장과 부적인 관계를 보였으나($b = -0.0006$), 1995년 이후 시기에는 성장과 정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b = 0.0064$).¹⁾

〈표 6〉 사회복지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시기별 차이 분석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모델5	모델6	모델7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ln Y_{t-1}$	-.12*** (.02)	-.12*** (.02)	-.10*** (.02)	-.11*** (.03)	-.08** (.03)	-.08** (.03)	-.09** (.03)
$\ln S$	.05*** (.01)	.07*** (.01)	.08*** (.01)	.07*** (.01)	.08*** (.01)	.07*** (.01)	.08*** (.01)
$\ln H$	.01 (.02)	.03 (.02)	.03 (.02)	.01 (.02)	-.03 (.02)	-.01 (.02)	-.02 (.02)
$\ln P$	-1.16* (.46)	-1.17* (.49)	-1.09* (.49)	-.39 (.49)	-.64 (.58)	-.79 (.49)	-1.29* (.53)
$\ln T$	.07*** (.01)	.07*** (.02)	.07*** (.01)	.08*** (.02)	.09*** (.02)	.08*** (.01)	.08*** (.01)
I	-.004*** (.0005)	-.003*** (.0006)	-.002*** (.0005)	-.003*** (.0006)	-.002* (.0008)	-.003*** (.0007)	-.003*** (.0007)
$\ln TOT$	-.10*** (.01)						
$\ln OLD$		-.07*** (.01)					
$\ln HLT$			-.05*** (.01)				
$\ln EMP$				-.01*** (.003)			
$\ln ALM$					-.0006* (.003)		
$\ln FAM$						-.02*** (.004)	
$\ln CAP$							-.02*** (.005)
PD	.14*** (.03)	.04** (.01)	.11*** (.03)	.01 (.01)	.01 (.01)	.01 (.01)	.002 (.01)
$PD \times SX$	-.04*** (.01)	-.02** (.01)	-.06*** (.02)	.002 (.003)	.007** (.002)	.003 (.003)	.008** (.003)
Con	1.05*** (.18)	.88*** (.20)	.52* (.22)	.62* (.26)	.36 (.30)	.34 (.26)	.46 (.26)
R^2	.44	.40	.40	.34	.32	.33	.32
N	651	651	651	643	583	651	651

주: OLS-PCSE 추정, 패널별 AR(1) 자기상관 허용, 국가더미변수, 추세변수 분석에 포함, 변수명은 〈표 5〉 주 참고, PD: 시기더미,

PD×SX: 시기더미와 지출항목간 상호작용항, Con: 상수항

+ p<.10, * p<.05, ** p<.01, *** p<.001

1) 복지와 성장 간의 관계가 생산레짐별로 어떻게 달라지는 지 살펴보기 위해 레짐더미 변수 및 레짐더미 변수와 사회복지지출 간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여 분석하였으나, 총사회복지지출 및 모든 하위 지출항목에서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7〉 사회복지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시기별, 생산레짐별 차이 분석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ln Y_{t-1}$	-.02* (.01)	-.02* (.01)	-.01 (.01)	-.01 (.01)
$\ln S$	.04*** (.01)	.05*** (.01)	.05*** (.01)	.05*** (.01)
$\ln H$	.03* (.01)	.04** (.01)	.06*** (.01)	.07*** (.01)
$\ln P$	-1.73*** (.42)	-1.55** (.46)	-1.42** (.44)	-1.51** (.44)
$\ln T$	.02*** (.003)	.01*** (.003)	.01*** (.003)	.01*** (.003)
I	-.002*** (.0007)	-.002** (.0007)	-.002* (.0008)	-.002* (.0007)
$\ln TOT$	-.04*** (.01)			
$\ln OLD$		-.005 (.006)		
$\ln FAM$			-.004 (.003)	
$\ln CAP$				.002 (.006)
PD	.14** (.04)	.04** (.02)	.008 (.01)	.009 (.01)
RD	-.04 (.04)	.01 (.02)	-.01* (.005)	-.008 (.007)
$PD \times SX$	-.05** (.01)	-.02** (.007)	.003 (.003)	-.003 (.007)
$RD \times SX$	.01 (.01)	-.01 (.007)	-.003 (.004)	-.01 (.007)
$PD \times RD$	-.17*** (.04)	-.04 (.02)	-.005 (.005)	-.01+ (.007)
$PD \times RD \times SX$	.06*** (.01)	.02* (.01)	.009+ (.005)	.02* (.008)
Con	.15 (.09)	.01 (.09)	-.08 (.09)	-.11 (.09)
R^2	.24	.19	.18	.19
N	651	651	651	651

주: OLS-PCSE 추정, 패널별 AR(1) 자기상관 허용, 추세변수 분석에 포함, 변수명은 〈표6〉 주 참고, PD: 시기더미, RD: 레짐더미, PD×SX: 시기더미와 지출항목간 상호작용항, RD×SX: 레짐더미와 지출항목간 상호작용항, PD×RD: 시기더미와 레짐더미 간 상호작용항, PD×RD×SX: 시기더미, 레짐더미, 지출항목간 상호작용항, Con: 상수항

+ p<.10,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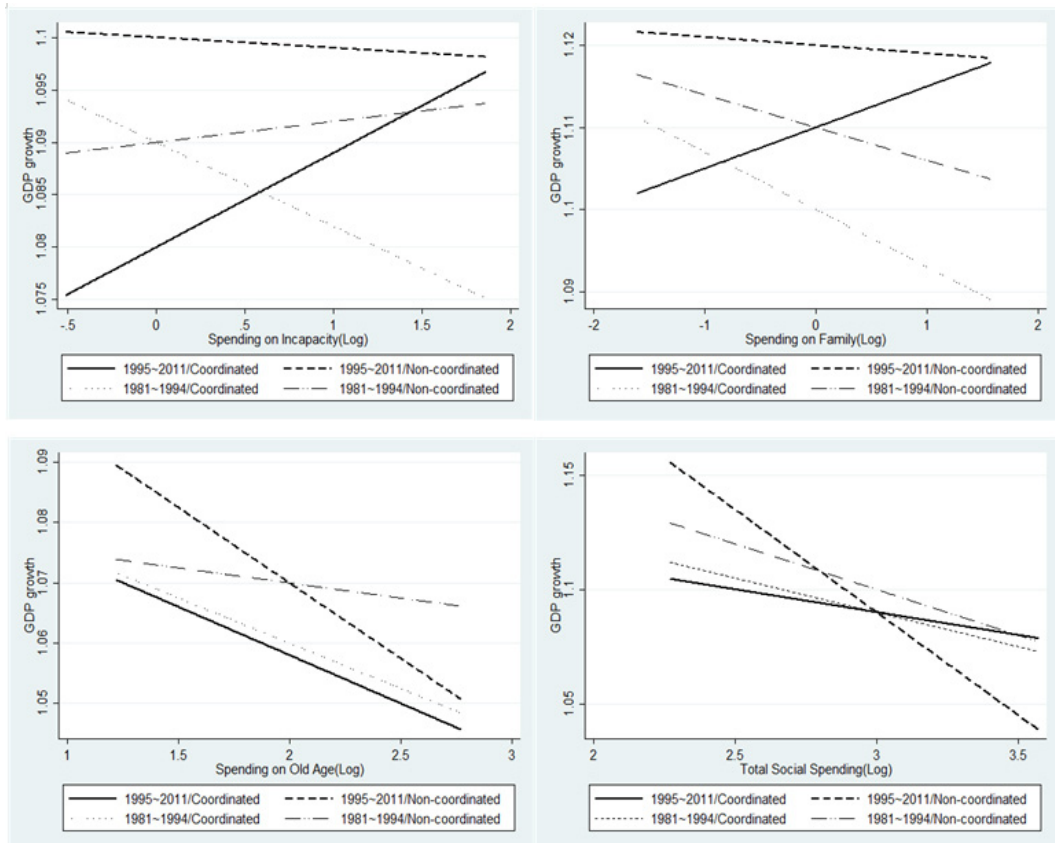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복지와 성장의 관계를 시기별, 레짐별로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시기더미, 레짐 더미, 사회복지지출 변수 간 이원 및 삼원 상호작용항이 포함된 분석결과가 <표 7>에 제시되어 있다(삼원 상호작용항이 유의미한 경우만 표에 제시하였음). 총사회복지지출에 대한 분석결과인 모델 1을 살펴보면 이원, 삼원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 사회복지지출의 하위항목별 결과인 모델 2~모델 4를 살펴보면 노인, 가족, 장애인에 대한 지출에서 삼원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결과해석의 편의를 위해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그림 2>에 시각적으로 제시하였다. 1981~1994년 시기 조정된 시장경제 국가, 1981~1994년 시기 조정되지 않은 시장경제 국가, 1995~2011년 시기 조정된 시장경제 국가, 1995~2011년 시기 조정되지 않은 시장경제 국가 네 경우 모두에서 총사회복지지출은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영향의 강도에 있어 시기별, 레짐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조정된 시장경제 국가의 경우 1991~1994년에 비해 1995~2011년 시기에 복지지출이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다소 감소한 반면(각각 $b = -0.03$, $b = -0.02$), 조정되지 않은 시장경제 국가의 경우 복지지출이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욱 증가하였다(각각 $b = -0.04$, $b = -0.09$). 전체 사회복지지출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복지와 성장 간의 관계에 있어 조정된 시장경제 국가와 조정되지 않은 시장경제 국가 간 격차가 1990년대 중반 이후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노인에 대한 지출 역시 총사회복지지출의 경우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가족에 대한 지출에서도 시기별, 레짐별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났다. 조정된 시장경제 국가의 경우 1981~1994년 기간에는 가족지출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이었으나($b = -0.007$), 1995~2011년 기간에는 가족지출과 성장 간의 관계가 정적으로 변화하였다($b = 0.005$). 조정되지 않은 시장경제 국가의 경우 두 시기 모두 부적 관계를 보이나 1981~1994년 시기에 비해 1995년 이후 시기에 부정적 영향이 약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각각 $b = -0.004$, $b = -0.001$).

장애에 대한 지출 역시 시기별, 레짐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조정된 시장경제 국가의 경우 1981~1994년 시기 장애에 대한 지출과 경장성장 간에 부적 관계가 발견되었으나($b = -0.008$), 1995년 이후 정적인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b = 0.009$). 조정되지 않은 시장경제 국가에서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는데, 1995년 이전 정적인 관계에서($b = 0.002$), 1995년 이후 부적적인 관계로 변화하였다($b = -0.001$).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총사회복지지출 및 노인, 가족, 장애의 하위 지출항목에서 시기별, 레짐별 차이가 발견되었다. 조정된 시장경제 국가의 경우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감소하거나 지출항목에 따라서는 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반면, 조정되지 않은 시장경제 국가의 경우 사회복지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욱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 결과 복지와 성장 간의 관계에 있어 조정된 시장경제 국가와 조정되지 않은 시장경제 국가 간 격차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2〉 시기별, 레짐별 사회복지지출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

5. 결론 및 함의

이 연구는 1981-2011년 21개 선진자본주의 국가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지출항목, 시기, 레짐에 따라 사회복지지출과 성장 간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81-2011년 전 기간, 21개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총 사회 복지 지출은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출항목별로 각각 분석한 결과역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지출을 제외하고 대체로 경제성장과 부적 관계를 보였다. 이는 복지와 성장 간의 관계에 대한 상반된 이론적, 실증적 논의 중 복지가 성장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지출항목별 분석에서 항목별 영향력의 크기에 차이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 노인에 대한 지출은 부정 영향이 크게 나타났고, 가족, 실업에 대한 지출은 부정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이는 소극적, 현금이전 지출에 비해 적극적, 사회서비스 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긍정적이라는 기존 연구의 결과를 일정부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분석기간을 1981-1994년, 1995-2011년 두 시기로 나누어 시기별로 복지와 성장과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한 결과 총 사회 복지 지출, 노인 및 건강에 대한 지출의 경우 1995년 이후 시기에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욱 증가하였다. 그러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지출의 경우 상이한 결과를 보였는데 1981-1994년 시기에는 성장과 부적 관계를 보였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오히려 정적 관계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특정 지출 항목, 특히 사회서비스 투자는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들(Ahn & Kim, 2015; Arjona, Ladaique, & Pearson, 2001)을 일정부분 지지하는 결과이다.

셋째, 사회복지지출, 시기더미, 레짐더미 변수 간의 삼원 상호작용분석 결과 시기 및 레짐에 따라 사회복지지출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가 서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조정된 시장경제 국가의 경우 1981-1994년 시기에 비해 1995년 이후 시기에 사회복지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줄어들거나 경우에 따라 정적인 관계로 변화한 반면, 조정되지 않은 시장경제 국가의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회복지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증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복지지출과 경제성장의 관계는 생산레짐으로 대표되는 개별 국가의 사회, 경제적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자본주의의 다양성 논의를 뒷받침 하는 실증적 증거를 제공한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경제적 글로벌화가 더욱 가속화된 1990년 대 중반 이후 복지와 성장의 관계에 있어 레짐 간 차이가 오히려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 연구는 사회복지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기존의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분석시기와 대상이 1981-2011년 21개 OECD 국가로 제한되어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우며, 시기와 국가선택의 편의가 연구결과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복지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엄밀한 이론적 모형을 바탕으로 한 구조적 분석이 아닌, 성장회귀식에 사회복지지출 변수를 추가하여 축약적으로 분석하였다는 한계 역시 일정 부분 존재한다(송호신, 2009). 또한 방법론적 측면에서, 장기시계열자료에서 나타날 수 있는 비정상성(non-stationarity) 문제나 성장회귀식 추정에 내재된 내생성(endogeneity)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하였다.²⁾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사회복지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지출항목, 시기, 레짐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증적 증거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와 성장 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 기여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지닐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적어도 1980년대 이 후 주요 선진국의 경우 복지지출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2) 장기시계열 자료의 비정상성(non-stationarity), 성장회귀식 추정 상의 내생성(endogeneity) 등을 고려한 몇 가지 대안적 방법들을 활용하여 분석을 시도하였으나 일관된 추정결과를 얻지 못하였고, 특히 이원, 삼원 상호작용을 포함한 모델의 분석에 어려움이 있었다.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성장과 맞물려 성장 친화적인, 지속 가능한 복지체제의 구축을 위한 노력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복지확대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복지와 성장의 관계가 복지의 하위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면 복지를 어떻게 구성하는가의 문제가 중요하며 본 연구의 결과는 성장친화적인 복지지출의 구성에 대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글로벌화가 심화되고 있는 최근 시기에 오히려 복지와 성장 간의 관계에 있어 레짐 간 차이가 커지고 있다는 결과는 생산체제와 복지체제의 상보성이 여전히 유효함을 의미한다. 개별 국가의 생산체제에 대한 엄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에 조응하는 복지체제를 구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김태성 (1997). 사회복지와 경제성장의 관계: 실증적 연구. <사회복지연구>, 10, 147-184.
- 김태완 외 (2013). 저소득층 현금 및 현물서비스 복지지출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연구보고서 2013-15).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변영우 (2012).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따른 사회지출 구조변화가 소득분배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미간행).
- 송호신 (2009). 사회복지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OECD 국가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재정포럼>, 152, 29-45.
- 심상용 (2010). 한국에서의 자유주의적 베버리지모델의 형성과 작동에 대한 시론적 연구: 생산레짐, 복지체제의 연계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4(4), 489-523.
- 안상훈 (2005). 생산과 복지의 제도적 상보성에 관한 비교연구: 선진자본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7(2), 205-230.
- 차병섭 · 이영 (2013). 사회복지지출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가? 도구변수법과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 <재정학연구>, 6(4), 109-149.
- Aaron, H. J. (1982). *Economic effects of social security*.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e.
- Afonso, A., & Alegre, J. (2011). Economic growth and budgetary component: A panel assessment for the EU. *Empirical Economics*, 41(3), 703-723.
- Ahn, S., & Kim, S. (2015). Social investment, social service and the economic performance of welfare state.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24, 109-119.
- Alvarez-Garcia, S., Saez, M. P., & Castaneda, D. (2015). Is social protection expenditure or an investment? A cross-country comparison in the European Union. *Journal of Knowledge Management, Econom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5(6), 1-11.
- Arjona, R., Ladaique, M., & Pearson, M. (2002). *Social protection and growth* (OECD Economic

- Studies no. 35). Paris: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Atkinson, A. B. (1995). The welfare state and economic performance. *National Tax Journal*, 48, 171-198.
- Baldacci, E., et al. (2010). *Public expenditures on social programs and household consumption in China* (WP/10/69).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Barnett, S., & Brooks, R. (2010). *China: does government health and education spending boost consumption?* (WP/10/16).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Barr, N. (2001). *The welfare state as piggy bank: information, risk, uncertainty, and the role of the state*. NY: Oxford University Press.
- Barro, R. J. (1989). *A Cross-Country Study of Growth, Saving and Government* (NBER WP no. 2855). Washington, D.C.: NBER.
- Barro, R. (1991). Economic Growth in a Cross Section of Countrie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6, 407-443.
- Barro, R. J. (1990). Government spending in a simple model of endogenous growt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8(5), 103-125.
- Barro, R. J. (1999). *Inequality and growth in a panel of countries*. Washington, D.C.: The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 Bassanini, A., & Scarpetta, S. (2001). *The driving forces of economic growth: panel data evidence for the OECD countries* (OECD Economic Studies 33). Paris: OECD.
- Beck, N., & Katz, N. (1995). What to do and not to do with time-series cross-sectional data.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9(3), 634-647.
- Belletini, G., & Ceroni, C. B. (2000). Social security expenditure and economic growth: An empirical assessment. *Research in Economics*, 54, 249-275.
- Blanchard, O., & Wolfers, J. (1999). *The role of shocks and institutions in the rise of European unemployment: the aggregate evidence* (NBER Working Paper 7282). Washington D.C.: NBER.
- Carritte, J., & Williamson, J. B. (1995). An analysis of the impact of public pension spending on economic growth in the affluent democracies 1960-1988.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Sociology*, 36(1-2), 82-95.
- Cashin, P. (1995). Government spending, taxes, and economic growth. *IMF Staff Papers*, 42, 237-269.
- Castle, F. G., & Dowrick, S. (1990). The impact of government spending levels on medium-term economic growth in the OECD, 1960-85. *Journal of Theoretical Politics*, 2, 173-204.

- Doytch, N., Hu, B., & Mendoza, Ru. (2010). *Social spending, fiscal space and governance: An analysis of patterns over the business cycle*. UNICEF, University of New Haven, and University of Maryland.
- Dreher, A. (2006). Does Globalization affect growth? Evidence from a new Index of globalization. *Applied Economics*, 38(10), 1091-1110.
- Ebbinghaus, B., & Manow, P. (2001). Introduction: Studying varieties of welfare capitalism. In B. Ebbinghaus & P. Manow (Eds.), *Comparing Welfare Capitalism: Social Policy and Political Economy in Europe, Japan and the USA* (pp. 1-24).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Ezrow, L., & Hellwig, T. (2015). The hidden cost of consensus: How coordinated market economies insulate politics. *Research and Politics*, 1-7.
- Feldstein, M. (1974). Social security, induced retirement and aggregate capital accumul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2, 905-926.
- Feldstein, M. (1996). Social security and saving: new time series evidence. *National Tax Journal*, 49, 151-164.
- Folster, S., & Henrekson, M. (2001). Growth effects of government expenditure and taxation in rich countries. *European Economic Review*, 50(1), 219-221.
- Furceri, D., & Zdzienicka, A. (2012). The effect of social spending on economic activity: Empirical evidence from a panel of OECD countries. *Fiscal Studies*, 33(1), 129-152.
- Gwartney, J., Lawson, R., & Holcombe, R. G. (1998). *The size and functions of government and economic growth* (Joint Economic Committee Paper). Washington DC.
- Hall, P. A., & Soskice, D. (2001). *Varieties of Capit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aveman, R. (1997). Employment and social protection: Are they compatible? *Social Policy Studies*, 21.
- Huber, E., & Stephens, D. (2002). Globalization, competitiveness, and the social democratic model. *Social Policy & Society*, 1(1), 47-57.
- Jung, H. S., & Throbecke, E. (2003). The impact of public education expenditure on human capital, growth and poverty in Tanzania and Zambia: A general equilibrium approach. *Journal of Policy Modeling*, 25(8), 701-725.
- Lindbeck, A. (1995). Hazardous welfare state dynamic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85(2), 9-15.
- Lindert, P. (2004). *Growing public: Social spending and economic growth since the eighteenth century*.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rtin, P. (1996). *Measures of replacement rates for the purpose of international comparison: A note* (OECD Economic Studies 26). Paris: OECD.
- Mitchell, D. (2005). *The impact of government spending on economic growth*. Washington, D.C.: The Heritage Foundation.
- Perotti, R. (1996). Growth, income distribution and democracy: What the data say. *Journal of Economic Growth*, 1, 149-187.
- Pfaller, A., Gough, I., & Therborn, G. (1991). *Can the welfare state compete?* London: Macmillan.
- Plumper, T., Troeger, V. E., & Manow, P. (2005). Panel data analysis in comparative politics: Linking method to theory.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44, 327-354.
- Sakellariadis, G. (2009).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social protection expenditures on economic growth in Greece*. Hellenic Observatory, European Institute, LSE.
- Sala-i-Martin, X. (1992). *Public Welfare and Growth* (Economic Growth Center DP 666). NJ: Yale University.
- Simoes, M., Duarte, A., & Andrade, J. S. (2014). *Assessing the impact of the welfare state on economic growth: A survey on recent developments*. Portugal: University of Coimbra.
- Weede, E. (1986). Sectoral reallocation, distributional coalitions and the welfare state as determinants of economic growth rates in OECD countrie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14, 501-519.
- Weede, E. (1991). The impact of state power on economic growth rates in OECD countries. *Quality and Quantity*, 25, 421-438.

The Effect of Social Welfare Spending on Economic Growth: Analysis by the Type of Spending, Time Periods, and Regime Type

Yung Soo Lee

Incheo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re is a long-standing debate in the literature on the influence of social welfare spending on economic growth. A growing number of empirical studies has investigated the effect of social welfare spending on economic growth: however, they do not produce consistent results partly due to theoretical ambigu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variations in countries and time periods covered in the analysis and other methodological issues. To fill the gap in the literature,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d the effect of social welfare spending on economic growth focusing on how the relationships vary by the type of spending, time periods as well as regime type. Analysis based on the panel data of 21 OECD countries during 1981-2011 showed that total social welfare spending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economic growth. Disaggregate analysis using sub-categories of social welfare spending also supported a negative effect of social welfare spending on economic growth although variations in the magnitude of relationships still existed. More importantly, our empirical findings reveal substantial differences across regimes and time periods in the effects of social welfare spending on economic growth. For example, in countries with Coordinated Market Economy(CME), the negative effect of social welfare spending on economic growth was diminished or even changed to be positive over time: the opposite was true for those with Non-Coordinated Market Economy(Non-CME). Theoretical, policy implications were then discussed.

Keywords: Social Welfare Spending, Economic Growth, Varieties of Capitalism, Coordinated Market Economy